

PI첨단소재, 2023년 2분기 실적 흑자 전환

- ▶ 수요 회복과 재고 조정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흑자 전환
- ▶ 고객 재고 정상화에 따른 restocking 수요 증가와 안정적 원가 구조 유지로 하반기 손익 개선 전망

<2023-07-24>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국내 폴리이미드(PI) 소재 전문기업 PI첨단소재(178920)가 2023년 2분기 매출액 602억원, EBITDA 99억원, 영업이익 25억원, 순이익 2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모든 제품군의 매출이 반등하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1.2% 상승했고, 지난 1분기 고강도 가동 조정에 따른 재고 정상화로 가동률이 전분기 대비 31.2%p 상승하며 흑자전환에 기여했다.

용도별로는 FPCB용 매출이 고객 재고 정상화에 따른 restocking 수요 증가에 따라 전분기 대비 39.0% 증가했고, 방열시트용 매출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 및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매출 증가로 전분기 대비 103.1% 증가했다. 첨단산업용 매출도 EV·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공정용 매출이 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분기 대비 11.0% 상승했다.

제품별로는 필름과 바니쉬 모두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필름 매출은 41.4%, 바니쉬 및 기타 매출은 36.3% 성장했다. 특히 EV구동모터 권선 절연용 바니쉬 매출이 역대 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바니쉬 및 기타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고객사 보유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고객사 리스토킹(Restocking) 수요에 따라 전방시장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해 EV배터리 절연용 필름과 EV바니쉬 고객을 확대하고, 반도체 공정 및 우주항공용 소재 개발을 통해 추가 매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 전망 역시 언급했다.

PI첨단소재는 시장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증설 투자 역시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024년 3분기 완공 및 양산을 목표로 하는 연간 3,000톤 규모의 EV 바니쉬 전용 증설 투자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PI필름 9호기 역시 활발히 증설을 진행 중이다. PI파우더 증설은 올해 3분기 중 완료되어 양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해당 증설이 완료되면 PI첨단소재는 전세계 최초로 PI 필름, 바니쉬, 파우더 3대 사업영역의 양산체제를 구축한 첫번째 사업자로 거듭날 전망이다.